

아모스 이야기

* 10/19(화) 아모스 ❶ 1-9장

아모스 1-9장		
<p>▶ 아모스 소개 1:1</p> <p>▶ 열강이 심판받는 이유 1: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메섹(수리아)의 죄악 · 가사(블레셋)의 죄악 · 두로(베니게)의 죄악 · 에돔의 죄악 · 암몬의 죄악 · 모압의 죄악 · 유다에 내리신 심판 	<p>▶ 이스라엘에 내리신 심판 2:6-16</p> <p>▶ 사마리아의 죄, 애가 3-6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특권 ·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 형식적인 종교의 말로 · 풍요 속에서의 죄악 	<p>▶ 아모스가 본 다섯 가지 환상 7:1-9: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뚜기 · 불 · 다림줄 · 선지자 아모스 vs. 제사장 아마샤 · 여름 과일 · 성전 붕괴 <p>▶ 회복의 말씀 9:1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윗의 장막 회복 · 만국 기업 · 풍성한 추수 · 황폐한 성읍 재건 ·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Before 줄치며 읽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에게는
회복을 향한 분투가
있습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역대 가장 부강한 북이스라엘입니다(왕하 14:25-27).

하나님의 뜻이 선(善)입니다.
악(惡)을 미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고인 물입니다. 썩어 부패했습니다.
다윗의 때와 천지차이입니다(삼하 8:15, 대상 18:14).

영광의 자리는 학대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6:14).

• 아모스, ‘유턴의 신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모스, 그는 ‘짐을 진 자’입니다.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활동합니다(1:1, 7:14-15).

무능력한 기득권층은 그가 못마땅합니다(7:12-13).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배경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이야기로 푸는 소선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야 할’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 이스라엘, ‘빨간불 신호’

타락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더럽힙니다. 선지자들을 금합니다(2:6-8, 12).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뜻도 의미도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4:1, 4-5). 죄를 범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열심이 가득합니다.

자기만족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치장한 얼굴이 아니라 그 이면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양식이 떨어집니다. 비가 그칩니다. 재앙이 닥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리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수많은 경고에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4:6-11).

“들으라(3:1, 4:1, 5:1).”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6).”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란 ‘착각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미치지 않을 거란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5:18).”

여호와와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이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 선지자, ‘이스라엘 보호’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의 중보로 뜻을 돌이키십니다(7:1-3).

불의 징벌입니다. 그의 중보로 뜻을 또 돌이키십니다(7:4-6). 허나, 여기까지입니다.

아모스의 중재만으로 심판을 영원히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림줄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름 과일(카이츠)로 이스라엘의 끝(케츠)을 선고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죄의 몫을 철저하게 물으십시오.

징계의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 페이지의 다음 장은 ‘회복’입니다(9:1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5:24).”

나의 신앙은 청신호입니까, 적신호입니까?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까?